



영화 '봉이 김선달'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유승호, 고창석, 라미란, 시우민, 박대민 감독(왼쪽부터).

조선을 뒤흔든 전설의 사기꾼 '봉이 김선달'

현대적 감각 영화로 재탄생 ... 유승호 과감한 여장 도전

군 제대 후 영화계로 복귀한 배우 유승호가 전작의 실패를 딛고 두번째 작품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영화 '봉이 김선달'의 박대민 감독과 유승호, 고창석, 라미란, 시우민 등 출연 배우들은 31일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전했다.

'봉이 김선달'은 대중강물을 팔아 거금을 쟁긴 일화로 유명한 구전설화 속의 인물 김선달을 소재로 한 영화다. 희대의 사기꾼 김선달(유승호)이 위장 전문 보원(고창석), 복채 강탈 전문 윤보살(라미란), 사기 꿈나무 권이(시우민)와 한패를 이뤄 별이는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조선에서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된다는 담과고(담배)를 탈취하려고 모색하던 중 그 배후에 당대 최고의 권력이 성대력(조재현)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를 속이고자 주인 없는 대중강을 미끼로 한 인생 최대 사기판을 준비한다.

박 감독은 "설화 속 김선달의 대담한 사기행각을 가져오되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 김선달을 뒷집을 진 아저씨가 아니라 젊고 세시한 이미지로 만들려 했다"며 "개성 넘치는 패거리와 함께해 사건의 규모를 키우고 캐리커툰 호흡도 갖추려 했

다"고 영화와 기존 구전설화간 차이점을 설명했다.

주연을 맡은 유승호는 "웃기는 것으로 고창석 선배한테 지고 싶지 않았다"며 "촬영하면 할수록 웃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며 강한 열정으로 촬영에 임했음을 내비쳤다.

유승호는 이번 영화에서 처음 코미디 연기에 도전. 과감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여장에도 도전했다.

그는 "예쁘다는 말을 들어서 여자하면 예뻐 줄 알았는데 뭘 해도 남자 같았다"라며 "색다르고 잊지 못할 경험이지만 다시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와 연기 호흡을 맞춘 고창석은 "저렇게 해도 되나, 조금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감독한테 말할 정도로 유승호 씨가 스스로 신나서 망가졌다"며 코믹 연기에 열성을 보인 후배를 칭찬했다.

고창석은 이번 영화에서 중국어에서부터 팔도 사투리까지 온갖 언어를 구사하는 위장 전문 보원 역을 연기했다.

그는 "한 영화에서 여러 사투리를 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재미있었다"며 "사기꾼이다 보니 다양한 상황극을 하게 돼 영화를 여러 편 찍은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영화는 그룹 엑소 출신 시우민의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다. 그는 "가수로서 무대가 아닌 배우로서 현장이라 걱정을 많이 했으나 현장에서 마음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다"며 "촬영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면 만날 영화를 찍고 싶다"고 말했다.

라미란은 영화 '히말라야'에서 산악팀 홍일정으로 나온 데 이어 이번 영화에서 사기꾼의 홍일정으로 나온다.

그는 "제 역할을 좀 더 젊고 아름다운 배우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있었다"며 "그동안 보여 드린 모습과는 다른, 좀 더 앞선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이번 영화에서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유승호는 군 제대 후 찍은 첫 영화 '조선마술사'로 쓴맛을 봐 이번 영화가 남다르다. 지난해 말 개봉한 '조선마술사'는 총 관객 수가 62만여명에 불과했다.

유승호는 SBS TV 드라마 '리멤버 - 아들의 전쟁'으로 안방극장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으나 스크린에서도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됐다.

대답은 감독이 대신 했다. 박 감독은 "배우들의 다양한 변신과 스펙타클한 볼거리가 있는 시원한 영화"라며 "유쾌하고 통쾌한, 사이드 같은 영화"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협뉴스



다재다능 신예배우 김태리

"연기, 평생 해도 재밌을것 같아요"

영화 '아가씨' 내공 연기 눈길 ... 연기자로서 이상형 '창조적인 배우'

영화 '아가씨'로 콕 찍어 스타가 된 김태리는 대학 시절부터 연기 함성을 피기로 한 천생 배우였다.

인터뷰에서 그의 이름 옆에 '노출 수위', '동성애'라는 연관 검색어가 따라붙지만 이런 단어들에 연기에 대한 그의 열정을 설명해줄 수는 없다.

그는 2008년 경희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다.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연기를 꿈꾼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과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졌다. 2학년 때 동아리방에서 연극 소품을 만들다가 문득 연극배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다.

"1학년 때부터 연극동아리를 했는데, 하다가 맛 들렸죠.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무대에 올랐을 때, 끝난 후나 다 좋았어요. 이걸 평생 해도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처음이었죠."

이후 김태리는 대학로에서 조영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연극배우로서 경험을 쌓는다.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극단 '이루'를 만난 것도 이때다. 1년 반 동안 '잡일'을 하며 놀러 왔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내 단원'이 됐다. 대학로 시절 연기 수업을 받으려고 학교를 다닐까 잠시 고민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것도 곧 연기 수업이라는 극단 연출가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

그의 데뷔 무대는 연극 '넙죽이'이었다. 당초 그는 주연배우 강애심이 무대에 못 서게 되는 만악의 경우에 출연하는 대역 배우였다. 어느날 연습실에서 강애심의 권유로 김태리가 한시간 반 분량의 모노드라마 연기를 하게 됐고 이를 좋게 본 연출가가 그에게 실제 무대에 설 기회를 줬다.

이후 '팬지', '사랑을 묻다', '지금도 가슴 설렌다' 등의 연극에 출연하고, 알음알음으로 '문명' 등 독립·단편 영화에서 주·조연으로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의 운명을 바꾼 영화 '아가씨'의 오디션은 처음부터 특별하지는 않았다. 그가 소속사에 들어간 후 문을 두드렸던 여러 오디션 중 하나였다. 그러나 덜컥 오디션에 합격했다. 1500대의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오디션이었다.

김태리는 "뭘 것이라는 생각 없이 간 오디션이었다"며 "제작진이 신인배우를 찾은 지 오래됐어서인지 빨리 찾고 싶어하는, 다급해보이는 느낌을 받았다"며 웃었다.

김태리는 이 '아가씨'에서 신인 담지 않은 내공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칸 영화제에서 '아가씨' 시사회 후 영화 전문매체 트위터필름은 김태리를 두고 "영화에서 힘과 교활함, 매력, 코미디 재능을 과시하는 역으로 관객을 현혹시켰다. 동성애 정사 장면이 많다는 점이 아니라 그런 정사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기했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연기를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호평에 아직 쑥스러워한다. 그러면서도 "영화 '아가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나가고 싶다"며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걸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태리는 영화로 크게 이름을 알리게 됐지만 존경하는 배우로 극단 선배를 꼽고 아직도 무대 연기가 더 좋으며 연극 연기에 대한 변치않는 애정을 보였다.

그가 꼽는 연기자로서의 이상은 "창조적인 배우"다. 그는 "박찬욱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제가 간혹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어려런 같은 장면을 찍는데 똑같이 연기를 하더라. 세롭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은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추천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수성한 휴가(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죽종화)(재)	00 닥터 365 05 정은표의 세계문화유산순례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블로그 꿈지락
1	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총독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2	00 특집다큐 도농 직거래, 신 유통바람이 부다(재) 5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노스터리(재) 25 드림슈퍼 스페셜 55 텔레노스터리(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이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행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인(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물라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 7 35 KBS광주 5.18 36주기 특집다큐 (기억-누님자 이야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순천 보도특집 (국립순천도병원 개원 100년 잊혀진 기억)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	00 드라마스페셜 (편따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vs 스페인)
12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건강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매콤 가지 볶음과 스키가 가지 튀김)	15:20 꼬마철학자 후고	(지중해의 푸른 전설, 물타 3부
05:40 세계전문 아틀라스 (순다열도의 대자연 자바, 발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이처럼 눈부신 피랑, 코디노)
06:10 세계의 눈	12:00 EBS 정오 뉴스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1:30 한국기행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을 나쁜 개는 없다	16:00 출동! 슈퍼왕스(재)	(여행의 품격 3부
07:30 주사위 오정 큐비슈	12:40 지식채널 e	16:30 방귀대장 똥똥이(재)	인생의 파랑새)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EBS 초대석	16:45 덩동영 유치원 1~3(재)	21:50 EBS 다큐 프라임
08:00 덩동영 유치원 1~3	13:40 사이틴3 왔다 사춘기	17:30 꼬마버스 타요(재)	(당신의 대변은 건강하십시오??)
08:45 방귀대장 똥똥이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22:45 극한직업
09:00 출동! 슈퍼왕스	14:00 책과 팜	18:00 생방송 토크! 토크! 토크! 1~4	(성진기 재접미)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미앤미로봇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지	23:35 장수의 비밀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15:0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24:05 지식채널 e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4:10 EBS 초대석
		20:40 다큐 오늘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운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일 (음 4월 26일 甲寅)	
子	48년생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60년생 이동하는 기운이 비친다. 72년생 일마다 치열하고 집요하거나 상부의 관심이 될 것이다. 84년생 급류에 휘둘리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번민에 휩쓸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1, 47	午	42년생 점진적인 발전 속에 일사천일 정세도 보인다. 54년생 파격적인 조건이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도록 하자. 66년생 적절한 시기의 선택과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78년생 막연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라. 행운의 숫자 : 26, 60
丑	49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하자. 61년생 다수의 여중간 함 보다는 소수의 확실함이 더 낫다. 73년생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갈기로 연결할 수 있다. 85년생 얽어졌을 때에야 귀중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1, 61	未	43년생 한눈에 보아도 드러나니 즉시 찾을 수 있다. 55년생 상당 시간 동안 파동의 시기를 보낸 후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67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어 실망하는 판도다. 79년생 다수자의 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라. 행운의 숫자 : 84, 99
寅	50년생 순간의 착각이 커다란 병폐를 낳을 수도 있다. 62년생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니라. 74년생 외관에 치중하면 내실이 취약해진다. 86년생 기우뚱거리다가 바로 서는 위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65, 27	申	44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비능률적이다. 56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 68년생 세분화되면서 점점 흥미를 더하게 되리라. 80년생 불만하더라도 빨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4, 14
卯	51년생 외형적인 기교보다 내부적인 효용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 63년생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75년생 많고 적고 간에 지금은 다 모아야 할 때다. 87년생 남이 들을지도 모르니 조용히 얘기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9, 02	酉	45년생 실질적인 관계를 성립시키는 단계에 이른다. 57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머지않아 해결될 수이니 걱정하지 말고 임하라. 69년생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어 당황할 수도 있다. 81년생 흡족한 결과로 인해 즐거우리라. 행운의 숫자 : 95, 89
辰	40년생 사세를 진작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교두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52년생 자연스럽게 펼쳐지겠다. 64년생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할 것까지는 없다. 76년생 절호의 기회란 흔하지 않은 법이다. 88년생 확실하게 이득이 될만하다. 행운의 숫자 : 28, 09	戌	46년생 현실을 직시해야 정확한 판단이 선다. 58년생 강력하게 처리해야 효과를 보겠다. 70년생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번거롭다. 82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행동하는 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8, 20
巳	41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되어야 한다. 53년생 돈 쓸 일은 늘어나지만 들어 올 것은 한정적이다. 65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7년생 어디로 팔지 모를 일이다. 89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요긴하게 쓰이리라. 행운의 숫자 : 51, 01	亥	47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나 완전히 몰입하지. 59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71년생 가끔씩 나서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까 봐 겁이 없다. 83년생 별것은 없으니 크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11, 34